

## 헝가리 국립문서 보관소 소장 한국과 북한 관련 자료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496-2-7>

김보국,  
박사, 헝가리국립아카이브 동아시아연구소장,  
부다페스트, 헝거리  
Email: kim.bogook@mnl.gov.hu

**국문초록.** 헝가리는 12세기 말부터 공문서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시작했지만 터키의 침략 등으로 많은 자료를 잃기도 했다. 1757년에는 유럽에서 최초의 국립 아카이브가 헝가리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헝가리의 영토였던 지금의 슬로바티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약 30년 후에는 국립 아카이브를 부다페스트로 이전하였다. 보통 프랑스 대혁명 이후 설립된 프랑스 국립 아카이브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가 유럽 최초의 국립 아카이브이다. 1867년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왕국이 설립되고 이후에는 자료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56년 헝가리 혁명 시기에 많은 자료들이 손실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카르파티아 분지에 있는 국립 아카이브 중에는 가장 많은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기록에 대한 해석은 어떤 특정한 시기, 또는 개인 및 집단에 의해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록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기록물을 확인, 입수, 보존하는 것은 해석을 포함하여 기록물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담론의 바탕 이 되는, 연구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학문의 영역이 분화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록의 상위 범주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자료들의 절대량이 늘어나면서 일종의 학문적 분업 체계가 형성된 바에 기인한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일 것이다.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실 이러한 수사(修辭)가 아니더라도 공감하는 바인데, 특히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상상이 논리적 방법으로 상호 추동(推動)하는 학문의 영역에서, “기록”에 해당하는 “자료”는 이 ‘사실’과 ‘주관’의 접점에 위치한, 학문에 있어서 하나의 질료(質料)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문, 연구 활동의 기본적인 범주에 포함되는 이러한 자료, 더 구체적으로는 자료의 수집과 관련된 활동 및 연구에 대해 이를 학문적 영역의 일부로서 인정(認定)하는 바에는 대체로 인식하다. 이는 일종의 학문적인 편견, 혹은 조금 과격한 표현이 허용된다면, 소수 학문에 대한 다수 학문의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여기서 “학문적인 편견”이라는 것은 “학문하는 사람들의 편견”임에 다름 아닌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비록 인접 학문에서의 논의를 차용하는 바이지만, 이러 한 자료에 대한 담론들은 다시 한 번 이 자료의 수집과 관련된 활동 및 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맥도너(A. M. McDonough)는 그의 저서 『정보경제 학』(1963)에서 흔히 ‘자료’ 등으로 통칭되는 것에 대해 데이터(data), 정보(information), 지식(knowledge), 지혜(wisdom)로 구분한 바 있다. 의미 없는 기록의 데이터와 그러한 데이터에 의미가 부여된 정보, 그 정보에서 도출된 가치를 지식으로, 그리고 패턴화된 지식에 대하여는 이를 지혜로 구분하였는데(이용남 2001: 17) 자료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 기록은 이 구분에서 데이터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데이터는 아직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축적 없이는 그 다음 단계인 ‘정보’로서 활용이 불가능하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헝가리 문서를 수집하고 해제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학문적 활동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게 경험하였다. 자료의 입수가 학문의 영역에 포함되는 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굳이 어떠한 연구가 학문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의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며, 그렇기에 그 평가에도 너그러움을 바라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학문의 분과와 관련된 논의와는 독립적으로, 데이터 없는 정보도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을 부언(附言)하며, 본고에서는 하나의 의미 있는 데이터 이전의, 즉 정보 이전의 “의미 없는 기록”으로 서 한국전쟁 관련 헝가리 문서보관소 소장 자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자료의 소개, 정리 및 현황에 대한 기술이 직접적인 그 연구대상에 해당됨을 규장각(奎章閣) 서목(書目) 관련 국내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한다. 이는 비록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문서군(文書群)에 대한 기술이지만, 자료라는 공통점과 문헌학(文獻學), 혹은 서지학(書誌學)의 범주에서 다뤄지는 대상으로서 지닌 동일한 성격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연구방법에 대해서도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사점은 앞서 잠시 언급한, 기록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자체와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은 모두 연구의 범주에 해당함을 전한다고 간추릴 수 있다.

**주제어:** 헝가리 국립문서보관소 (Hungarian National Archives), 한국 (Korea), 북한 (North Korea), 자료 수집 (자료 수집), 역사적 문서 (역사적 문서), 국제 관계 (국제 관계), 전쟁 기록 (전쟁 기록), 동아시아 (동아시아)

# ARCHIVAL MATERIALS ABOUT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E STATE ARCHIVES OF HUNGARY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496-2-7>

**Kim Bogook**

*PhD, National Archives of Hungary, East Asian Research Centre,  
Budapest, Hungary*

*Email: kim.bogook@mnl.gov.hu*

**Annotation.**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trace in retrospect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s of those events that are stirring up the country today, to find the historical basis of our turbulent and seemingly unexpected modern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Due to its variegated climatic zoning, the Ukrainian territory will turn into a zone of “regular instability” for a long time, which can be compared to the transit corridor of Eurasia. For many millennia, a zone of contacts and conflicts of a wide variety of civilizations, and not just neighboring, well-acquainted peoples, has formed here. The zoning of the Ukraine’s geographical territory includes the forest-steppe and steppe zone – the Great Eurasian Steppe. This geography shaped the history of Ukraine because not only the steppe, but also the forest-steppe is tied to the territory of our country. The Northern part of Ukraine covers a forest massif of the European range. These geographical zones divide the territory of Ukraine from North to South, adding the sea coast, which has been playing a key role in contacts with European civilization for the last 2500 thousand years. Such a geoclimatic transition provided the Ukrainian lands with a very colourful picture of historical events the manifestation of which was the constant communication of various communities that migrated in certain directions with their own special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And all these waves of migration poured out for thousands of years on a rather narrow platform of Eastern European spaces which are now called Ukraine. The Black Sea and the Ukraine’s access to the Black Sea coast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tacts with the historical centres of the European civilization. This allows Ukraine to maintain cultural and trade contacts with Egypt, Jerusalem, Greece, Rome and medieval Europe. In the second half of the third millennium B.C., the climatic changes were again taking place on the territory of Ukraine. The steppe was significantly moistened, and the black soil regions of Central Ukraine, which were previously suitable for field farming, were becoming overgrown with forests. Due to the afore-mentioned facts, the first nomads in its history – representatives of the*

*so-called pit archaeological culture – invaded the land of the present-day Ukraine from the East. The “wild steppe” of Ukraine turned out to be not so wild anymore. The Scythians were not the only people living in the Black Sea region in ancient times. It became clear that there was a real “passage yard”. The great resettlement of peoples in the Ukrainian lands was clearly manifested in the extraordinary movement of nomadic peoples, which the steppe “generator” began to demonstrate. If the Scythians stayed in the Black Sea region for a thousand years, the Sarmatians stayed there for six hundred, the Huns – for fifty. And after them, Avars, Bulgarians, Magyars, Pechenegs, Turks, Polovtsians, and, finally, Tatar-Mongols began to pour out in a stream, almost without stopping. The elements of a developed urban civilization were characteristic of the Eurasian steppe. Hundreds of steppe cities are known, founded by nomadic nobility at different times, with all the signs of urban infrastructure: stone construction, craft centres, ports, and objects of social importance. Until the end of the 18th century, the scheme of the steppe development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island urbanism – when cities (at the mouths of rivers) turned into enclaves of settled life, the concentration of power of one or another state that considers this territory its own, and between them, as in the open sea, the life of nomads developed. The latter cities were sometimes even besieged and taken by storm – both their own (they roamed within the framework of approved “rules” with the sovereign state), and foreign ones.*

**Keywords:** *history of Ukraine, Eurasia, archaeological cultures, antiquity, Italian colonization, Black Sea, Great Eurasian Steppe.*

헝가리 국립 문서 보관소 소장 자료 중 폰드 군(Fond 群, 문서 군, Record Group)이 “XIX”로 시작되는 자료들은 국가(헝가리) 행정 상부 조직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 자료는 다시 2개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주요 6대 분야에 대한 자료들로서 중앙 정부 조직, 내무, 보건 및 복지, 사법, 문화, 외무 자료들이며, 이들은 각각 A, B, C, E, I, J 라는 표식으로 구분된다. XIX에 속하는 다른 하나의 자료들은 중앙 정부 조직, 건축, 산업, 상업, 교통 및 우편, 농업 및 식품, 재무 관련 자료들로서 이들에게도 역시 각각 A, D, F, G, H, K, L이라는 표식이 부여되어 있다. 위의 분류로 본다면 헝가리 외무 관련 자료라는 폰드(fond)인 “XIX-J”에 가장 많은 남북한 관련 자료가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XIX-J” 자료는 다시 그 하위에 59개의 소분류로 나누어지는데 “XIX-J-1”로 분류되는 항목이 헝가리 외무성 자료들(1862-1995)이다. 그리고 이 외무성 자료들에는 또다시 알파벳으로 표기된 25개의 하위 분류가 있으며, 그 중 “XIX-J-1-j”와 “XIX-J-1-k”로 분류된 자료들에 상당한 분량의 남북한 관련 자료들이 있다.

“XIX-J-1-j” 자료들은 외교 기밀 취급 문서로 분류된 자료들이며, “XIX-J-1-k” 자료들은 외교 일반 행정 기밀 문서로 분류된 자료들이다. 1995년까지의 자료로 한정한다면 “XIX-J-1-j”는 103개의 하위 분류로 다시 세분화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는, “XIX-J-1-j 1945–1964 Korea (1945–1964)”는 전체가, 그리고 “XIX-J-1-j 1965 Tük iratok (1965)”부터 “XIX-J-1-j 1995 Tük iratok (1995)”까지 총 31개의 세부 분류 항목 중 일부분은 남북한 관련 자료들이다. 외교 일반 행정 기밀 문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1995년 자료까지에 한정한다면 총 95개의 세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이 중 전체 “XIX-J-1-k 1945–1964 Korea (1945–1964)” 자료와 “XIX-J-1-k 1965 Általános iratok (1965)”부터 “XIX-J-1-k 1995 Általános iratok (1995)”까지, 총 31개 세부 항목의 일부가 남북한 관련 자료들이다. 자료들을 셈하여 본다면, “XIX-J-1-j”로 분류되는 자료들 중의 약 5만 4천 장, “XIX-J-1-k”의 경우는 대략 5만 장 정도가 남북한 관련 자료로 구분된다.

이 외에도 앞서 언급한 “XIX-J”, 즉 헝가리 외무성 자료들의 하위 분류에는 “XIX-J-14(-a)”로 표식된 자료들이 있다. 실자료표식목록명 (állagjegyzék)을 포함한 “XIX-J-14” 자료의 정확한 명칭은 “XIX-J-14 Phenjani nagykövetség (1950–1960)”이며, “XIX-J-14-a” 자료의 경우는 “XIX-J-14-a TÜK iratok (1950–1960)”인데, 자료의 목록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1950년부터 1960년까지 평양에 주재하던 헝가리 대사관 출처의 자료들이다. 총 19개 박스로 구성된 이 자료들의 전체 분량은 약 1만 5천 장으로 추정된다.

헝가리 문서 보관소에 소장된 남북한 관련 자료들은 비단 헝가리 외무성 자료들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는 한국전쟁 관련 시기의 중요한 자료는 헝가리 보건성에 보관되어 있기도 한데, 그 이유는 한국전쟁 발발 후 헝가리는 대단위의 의료 봉사단을 북한에 파견한 국가로서 1950년부터 1957년까지 연인원 100명으로 구성된 총 여덟 차례의 파견단으로 북한을 지원한 당시 사회주의 형제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헝가리 보건성의 자료들 또한 상당한 분량이 산재해 있는데, 우선 앞서 언급한 바 “XIX-C” 표식 자료들은 보건 및 복지 관련 자료들이며, 그 중 “XIX-C-2”로 분류된 자료들은 헝가리 보건성 자료들이다. “XIX-C-2-1 Simon Lajos miniszterhelyettes (1950–1953)”, “XIX-C-2-m Zsoldos Sándor miniszter (1953–1954)”, 그리고 “XIX-C-2-y Visszaminősített TÜK iratok (1950–1984)”라는 제목의 세부 항목들에서 북한 지원 관련 헝가리 보건성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의 경우 북한에 지원한 헝가리 병원 자료들만 따로 분류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자료들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 분량과 내용에 대해 전혀 짐작을 할 수 없다.

헝가리 보건성 출처의 남북한 관련 자료들 중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자료는 헝가리 국립 문서 보관소의 다소 생소한 분류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 행정 상부 조직에 관련된 분류(XIX)가 아닌, 1944년부터 2011년까지 헝가리의 기관 및 단체들의 자료를 모아둔 항목인 “XXVI” 분류에 흥미로운 북한의 헝가리 병원 자료들이 있다. 이 자료들 중 “XXVI-C”는 보건과 복지 관련 자료들이며, “XXVI-C-1”로 표기된 자료들은 한국전쟁 시기, 당시 헝가리의 최고 권력자 이름에서 유래한 라코시 마타쉬 병원(Rákosi Mátyás Kórház) 관련 자료들만 따로 모아둔 것이다. “관련”이라는 표현에 방점을 준 이유는, 헝가리 보건성에서 보관 중이던 라코시 마타쉬 병원 자료들 중 상당수가 1956년 헝가리 혁명 시기에 소실되고, 남은 자료들 중 당시 헝가리 국내에서 큰 가치나 의미를 둘 수 없는 자료들이 1980년 12월에 헝가리 문서 보관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병원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은 대부분 헝가리 외무성을 포함하여 당시 정부 각 기관 출처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상기한 분류에 포함된 한국전쟁 관련 자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앞 장에서 간략하게 요약한 바대로, 이 폰드(fond, XIX-J-1)와 실자료표식(實資料表式, állag, XIX-J-1.j)은 남북한과 관련된 1945년부터 1964년까지의 외무성 기밀 취급 문서이다. 이 표식을 순서대로 다시 한 번 나열해보자면 “XIX”는 헝가리 국가 행정 조직을 의미하고 “J”는 외무 자료, “1”은 헝가리 외무성, “j”는 기밀 취급 문서(TÜK)를 의미한다. 그리고 “1945-1964 Korea (1945-1964)”는 간단한 자료 목록명으로서 임의로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해 1945년부터 1964년까지 남북한(Korea)과 관련된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자료 목록명으로 항상 연도와 국가명이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

이 자료들 중 한국전쟁과 관련된, 한국전쟁 시기에 생성된 자료는 약 200건에 달하며, 그 중 중요한 몇몇 자료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자료들은 기존에 “일반 행정 기밀 문서”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헝가리 국립 문서 보관소의 보관 체계에 따른 분류로 확인해보자면, “XIX”는 헝가리 국가 행정 조직을, “J”는 외무 자료, “1”은 헝가리 외무성, “k”는 일반 행정 기밀 문서를 각각 의미한다. 이 자료들은 앞서 살펴보았던, “XIX-J-1.j 1945-1964 Korea (1945-1964)” 자료들과 자료의 성격상 조금의 차이를 보이는데, XIX-J-1-k의 경우 헝가리 법에 따른 엄격한 취급 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 기밀 취급 문서(TÜK, Titkos ügykezelésű iratok)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은 상당 부분 기밀 자료들로 분류되어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처럼 다수의 흥미로운 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시기에 생성된 자료들은 약 350개이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폰드(XIX-J-14)와 실자료표식(XIX-J-14-a)은 아직 국내에 전혀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이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한국전쟁과 관련하여서는 더욱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자료들은 1950년부터 1960년까지의 기간을 한정하여 따로 구분해 둔 자료로서 평양에 상주했던 헝가리 외교 공관에서 작성된 문서만 모아 둔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 자료가 기밀 취급 문서로 지정되어 있는데, 평양 주재(駐在) 헝가리 공관에서 생성된 다수의 기밀 취급 문서는 실자료표식 “XIX-J-1-j”로 분류되어 앞서 언급한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XIX-J-1-j와 중복되는 자료들은 없으나, 일부 자료들이 XIX-J-1-j 자료들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호 보완적인 이 두 폰드의 자료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XIX-J-14-a 자료들은 전체 19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1번, 2번, 3번, 4번(일부), 11번(일부),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일부) 박스에 한국전쟁 시기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일부 자료들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헝가리 국립 문서 보관소의 XXVI-C-1 자료는 한국전쟁과 관련한 조금 특이하고 특별한 자료이다. XXVI-C 폰드군(fond群)은 원래 헝가리의 단체, 기관들 중 보건과 복지 관련 자료를 모은 것인데 XXVI-C-1이라는 폰드로 따로 구분해 놓았다. 이 자료들은 한국전쟁 당시 전적으로 헝가리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었던 라코시 마타쉬 병원(Rákosi Mátyás kórház) 출처의 자료들로서 진료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서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폰드의 구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자료들은 행정적인 보고서나 현황 관련 자료 없이 보건 업무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총 5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1955년에 헝가리 보건성에서 보관하기 시작하여 1980년 12월에 헝가리 국립 문서 보관소로 자료가 이관되었다. 그 내용은 1번 박스의 경우 X-ray 촬영 기록을 포함한 환자들의 진료 기록들이며, 2번 박스는 진료 기록 및 수술 일지로 구성되어 있다. 3번 박스에는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헝가리 의료진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인데 상당 부분이 미개봉 상태였으나, 자료 확인을 위해 모두 개봉하여 확인하였다. 4번 박스에는 진료 및 수술 일지와 의학 분야 학술지, 특히 중국의 의학 학술지에 실린 세균전 관련 특별호 영문 잡지도 보관되어 있다. 5번 박스는 1번 박스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분량의 X-ray 촬영 기록이 포함된 진료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한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유의미한, 동유럽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자료들과 관련하여 문헌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대상 지역의 물리적 거리가 원활한 연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시작조차 하지 못하면 자료의 축적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진일보된 연구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점점 개방화되고 전산화되는 자료들은 그 접근에 대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기에 연구 환경도 나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 다룬 한국전쟁 관련 헝가리 국립 문서 보관소 소장 자료들의 개관 및 일부 서지 정보는 아직 각 폰드에 산재해 있는 전체 관련 자료들까지 아우르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보다 입체적으로 자료를 소개하거나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본 연구자는 물론 향후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조금 더 완성된 형태로의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배현숙 (1986) “五臺山史庫와 收藏書籍에 대하여”. 『書誌學研究』
2. 배현숙 (1978) “朝鮮朝 史庫의 藏書管理”. 『奎章閣』
3. 남권희 (1987) “承華樓書目考”. 『社會科學研究』
4. 배현숙 (1979) “江華府史庫 收藏本考”. 『奎章閣』
5. 신용하 (1981) “『奎章總目』 解題”. 『奎章閣』
6. 신용하 (1981) “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研究”. 『奎章閣』
7. 배현숙 (1979) “江都外奎章閣考”. 『圖書館學論集』
8. 남권희 (1983) “奎章閣 西庫 그 書目分析”. 『奎章閣』
9. 방효순 (1992) “『芸閣冊都錄』을 통해 본 校書館 藏書에 관한 研究”. 『書誌學 研究』
10. 강순애 (1985) “正祖朝 奎章閣의 圖書編纂 및 刊行”. 『奎章閣』
11. 강혜영 (1994) “『內閣訪書錄』의 書誌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12. 남권희 (1984) “文獻閣과 文獻閣書目的 分析-肅宗朝의 文化的 背景을 통한 韓國 本書庫의 研究”. 『圖書館學』
13. 남권희 (1989) “『西序書目籤錄』 解題”. 『奎章閣』
14. 정연식 (1990) “『內閣訪書錄』 解題”. 『奎章閣』
15. 연갑수 (1994) “『內閣藏書彙編』 解題”. 『奎章閣』



16. 옥영정 (1999) “侍講院의 書籍編纂과 刊行記錄 考察”. 『書誌學研究』
17. 윤진영 (2013) “봉모당 소장 逸失 繪畫의 현황과 행방”. 『장서각』 29.
18. 옥영정 (2004) “藏書閣 所藏 御製類 刊本の 書誌的 分析”. 『書誌學研究』
19. 황정연 (2005) “朝鮮時代 宮中 書畫收藏處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20. 임지영 (2008) “朝鮮 正祖朝에 購入된 中國本の 書誌學的 研究”. 『書誌學報』
21. 신병주 (2006)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의 간행과 보관”. 『역사와 현실』
22. 김건우 (2007) “구한말 궁내부의 공문서 관리 규칙에 관한 일고찰”. 『한국기록 관리학회지』 7-1.
23. 남권희 (2008) “『奎章閣志』의 편찬과 19세기 奎章閣 서적보관제도”. 『書誌學研究』
24. 이상찬 (2011) “전주사고본 실록의 보존과 관리”. 『奎章閣』
25. 조계영 (2011) “조선 후기 선원각의 왕실 기록물 보존체계-정족산사고 『선원록 형지안(璿源錄形止案)』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26. 안미경 (2013)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 관한 연구-일반서책을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27. 강순애 (1990) “奎章閣의 圖書刊印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28. 이종목 (2002) “朝鮮時代 王室圖書의 收藏에 대하여”. 『書誌學報』
29. 이용남 외 6인 (2001) 『학술정보자원 활용』. 한성대학교 출판부.
30. 신병주 (2003) “‘實錄形止案’을 통해 본 『조선왕조실록』의 관리체계”. 『國史館論叢』
31. 양계봉 (1996) “太宗·世宗 年間の 寶文閣 藏書 利用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32. 옥영정 (1996) “摛文院의 藏書와 書目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